

억대 사기 영장 기각, 혐의 소명 못한 경찰

60대 사업가,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기각 광주경찰 영장 기각률 지난해 대비 약 6% 증가

경찰이 드라마 '모래시계' 속 조직 폭력배 두목 역할의 실존 모델로 알려진 60대 사업가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이 혐의를 소명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 21단독(영장전담) 김종근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여모(68)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

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여씨는 전남의 한 산업 집적지(230억 원대)를 매매 계약하던 지인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35억 원을 빌려 갖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여씨는 A씨에게 부지 매각을 도와 주겠다고 접근해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갖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씨는 '부지 매각 성공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이 여씨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 비판이 일고 있다. 사건 관계인들 진술과 계좌 내역 외에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실제 최근 광주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도 늘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광주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6.2%(판사), 15.4%(검사)에서 올해 같은 기간 16.5%(판사), 21.1%(검사)로 증가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구속영장 신

청 당시에는 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영장 청구를 검토한 검찰도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보강 수사와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에 대한 수사 이의 제기(2017년 1366건→2020년 1679건), 수사관 기피 신청(2018년 2425건→2020년 3520건)을 비롯해 검찰의 재수사·보완 수사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

여씨 역시 자신이 1990년대 인기 드라마 '모래시계'에 나온 조폭 두목의 실제 모델로 잘못 알려졌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2017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최이슬기자



광양소방, 광양북초등학교에서 미래소방관 체험행사 진행

광양소방서 광양119안전센터장(소방경 김동기)은 최근 광양북초등학교 5,6학년 25명을 대상으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광양=심종섭기자



광주 남부소방, 응급의료지도의사 구급차 동승 실습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119구급차 동승 실습을 실시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동부소방, 관내 비화재경보 오인출동 개선 위해 합동점검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최근 동구 관내 비화재경보 오인출동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소방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경찰서, 담양공업고등학교 정문에서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담양경찰서(서장 김홍균)는 담양공업고등학교 정문에서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며 20일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강진경찰,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강진경찰서(총경 박승기)는 지난 21일 경찰관, 협력단체장, 감사장 수상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안전하게 법집행은 공정하게'라는 부제 아래 제7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해경, 연안 위험구역 합동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힘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오는 29일까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위험구역 28개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이민혁기자



'일회용 말고 다회용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플라스틱 프리 페어' 박람회가 열린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일회용 용기를 다회용 용기로 교환해 주는 부스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신군부 고문으로 절도범 몰린 50대, '재심서 무죄'

505보안대 불법 체포·구금 뒤 가혹행위, 허위 자백 강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불법 구금·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특수절도·도주죄를 뒤집어썼던 5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참여 행위(소요·계엄법 위반 등)를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경우는 많았지만, 전두환 신군부가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기 위해 5·18참여자에게 추가로 뒤집어씌운 혐의까지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증거에 따라 군이 5·18 전후 광범위한 위법 행위(불법 체포·구금·고문)를 했다고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소요·계엄법 위반·도주·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모(59)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80년 5월 권력 전탈을 위해 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전두환 신군부의 현정 유리에 맞서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며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1980년 5월 29일 광주경찰서로 연행됐다가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상무대) 헌병대 영장으로 보내졌다.

이씨는 같은 해 6월 505보안대로 끌려가 극심한 가혹행위(물·전기 고문 등)를 당했고, 건강 악화로 광주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됐다.

같은 해 7월 4일 전남북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이 영장 없이 이씨를 구속했고, 이씨는 다음 날 다시 상무대 영장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국군통합병원을 탈출했다. 이씨는 친구·사촌누나·이모집을 전전하다 도주 하루 만인 7월

7일 붙잡혀 505보안대로 연행돼 또다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씨는 또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돼 닷새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1980년 8월 1일 군법회의에 기소됐다.

신군부는 절도 범죄(금반지 등)를 저지른 적 없는 이씨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 특수절도죄도 적용했다.

이씨는 전교사보통군법회의·육군 고등군법회의·대법원을 거쳐 징역형(장기 3년·단기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2018년 5월 이씨의 소요·계엄법 위반·도주죄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5·18특별법상 민중항쟁과 관련된 행위인 소요·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만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가 재심 대상에서 빠진 이씨의 특수절도·도주죄 부분의 형을 다시 정하기 위한 심리를 하던 중 이씨가 5·18 당시 불법 체포·구금 상태에서 고문·가혹행위를 당한 유력한 증거가 발견됐다.

광주시의사회가 펴낸 5·18 의료 활동 책자에는 김연규 당시 국군통합병원장이 상무대 영장 등에서 고문·가혹행위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 온 5·18 참여자들을 진료한 기록이 실렸는데, 이씨의 후속 사유 등이 발견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기록을 이씨가 신군부에 의해 불법으로 수사를 받았고 극심한 고문까지 당한 명백한 증거로 보고, 5·18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를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505보안대 군인·헌병대원·경찰관들이 이씨에게 직권남용체포·감금, 폭력폭행·가혹행위죄 등을 저질렀으나 공소사실이 지나 현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상 장애가 명백하다"며 "이씨

가 재심을 청구한 특수절도·도주죄 또한 형사소송법 420조 7호·435조 1항에 따른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 심리 과정에 당시 군법회의가 특수절도·도주죄를 유죄로 인정한 증거의 대부분이 무효화됐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이씨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범관 발부 영장 없이 1980년 5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계엄포고에 의해 구속당한 것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효력이 없는 만큼, 군 검찰이 이씨에게 받은 자백은 위법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수사·재판 당시 가혹한 고문·가혹행위에 따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특수절도죄를) 거짓 자백했다는 취지로 재심 법정에서 이씨가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5·18 당시 고문 후유증으로 10년 넘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치료를 받는 점, 이씨가 도주 뒤 검거됐다가 또 가혹행위를 당해 재차 국군통합병원에 후송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소요·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도 다른 5·18 관련 재심 사건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전두환 신군부의 현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지·대항한 정당행위(형법 제20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선욱기자

국민 70.1% 접종 완료 단계적 일상회복 한발

전국에서 33만명 이상이 추가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치면서 전 국민의 70.1%인 3597만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다. 이로써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했다.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하루 접종 완료자는 33만2557명 늘어 누적 3597만5412명이다.

전체 인구(5134만9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 대비 70.1%, 만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81.5%가 백신별 기본 횟수를 모두 접종했다.

백신별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바이오텍 17만8930명, 모더나 14만7537명,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5585명(화이자 교차 접종 2966명 포함), 안센 505명 등이다. 안센 접종자는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통계에 모두 추가되지만, 접종 건수는 1건으로 기록된다.

전날 오후 2시까지 전 국민 접종 완료를 70%를 달성하면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조건을 충족했다.

연령별 접종 완료율을 보면 60세 이상은 90.7%다. 세부적으로 60대가 93.0%로 가장 높고, 70대 92.0%, 80세 이상 81.4% 순이다. 50대 이하에선 50대 92.1%, 40대 74.6%, 18-29세 70.9%, 30대 70.1%, 17세 이하 0.2%의 접종 완료율을 보인다.

1차 접종자는 전날 5만1227명 증가해 총 4076만4241명이다. 지난 2월 26일부터 240일 동안 전체 인구 대비 79.4%, 18세 이상 91.8%가 1회 이상 접종을 받았다.

신규 1차 접종자는 화이자 4만6723명, 모더나 3949명, 아스트라제네카 50명 등이다.

전날 네이버·카카오 당일 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한 잔여백신 접종자는 1차 1만4343명, 완료 2만3112명이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부스터샷)은 하루 새 492명 늘어 지난 12일부터 누적 2만5194명이다.

이날 0시 기준 16-17세 예약 대상자 88만7878명 중 54만365명이 예약을 마쳐 60.9%의 예약률을 보였다. 이중 전날 하루 동안 3만6428명이 새로 접종해 16-17세 1차 접종자는 누적 20만3956명이다.

12-15세 예약 대상자 186만7098명 중에서는 39만9105명이 예약해 21.4%의 예약률을 기록했다.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백신 물량은 총 1744만4800회분이다. 화이자 814만2800회분, 모더나 688만81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21만8300회분, 안센 19만5600회분 등이 남았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전국에서 33만명 이상이 추가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치면서 전 국민의 70.1%인 3597만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다. 이로써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했다.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하루 접종 완료자는 33만2557명 늘어 누적 3597만5412명이다.

전체 인구(5134만9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 대비 70.1%, 만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81.5%가 백신별 기본 횟수를 모두 접종했다.

백신별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바이오텍 17만8930명, 모더나 14만7537명,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5585명(화이자 교차 접종 2966명 포함), 안센 505명 등이다. 안센 접종자는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통계에 모두 추가되지만, 접종 건수는 1건으로 기록된다.

전날 오후 2시까지 전 국민 접종 완료를 70%를 달성하면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조건을 충족했다.

연령별 접종 완료율을 보면 60세 이상은 90.7%다. 세부적으로 60대가 93.0%로 가장 높고, 70대 92.0%, 80세 이상 81.4% 순이다. 50대 이하에선 50대 92.1%, 40대 74.6%, 18-29세 70.9%, 30대 70.1%, 17세 이하 0.2%의 접종 완료율을 보인다.

1차 접종자는 전날 5만1227명 증가해 총 4076만4241명이다. 지난 2월 26일부터 240일 동안 전체 인구 대비 79.4%, 18세 이상 91.8%가 1회 이상 접종을 받았다.

신규 1차 접종자는 화이자 4만6723명, 모더나 3949명, 아스트라제네카 50명 등이다.

전날 네이버·카카오 당일 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한 잔여백신 접종자는 1차 1만4343명, 완료 2만3112명이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부스터샷)은 하루 새 492명 늘어 지난 12일부터 누적 2만5194명이다.

이날 0시 기준 16-17세 예약 대상자 88만7878명 중 54만365명이 예약을 마쳐 60.9%의 예약률을 보였다. 이중 전날 하루 동안 3만6428명이 새로 접종해 16-17세 1차 접종자는 누적 20만3956명이다.

12-15세 예약 대상자 186만7098명 중에서는 39만9105명이 예약해 21.4%의 예약률을 기록했다.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백신 물량은 총 1744만4800회분이다. 화이자 814만2800회분, 모더나 688만81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21만8300회분, 안센 19만5600회분 등이 남았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